

‘골프여제’ 박인비, 1박2일 연장 준우승

‘ANA 인스퍼레이션’ 8차 연장 역대급 명승부
린드베리에 우승 내줘...통산 20승 다음기회에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1박2일에 걸쳐 8차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지만 어렵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박인비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9야드)에서 벌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80만 달러) 8차 연장전에서 파를 기록해 버디를 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에 우승을 내줬다. 대회 사상 첫 손에 꼽을 만한 연장 명승부였다. 두 선수는 전날 4차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7시30분에 일몰로 경기가 다음날로 순연됐다. 하루 뒤 현지 시간 오전 8시 5차 연장이 재개됐다. 메이저 8승을 노리는 박인비와 데뷔 첫 우승에 도전하는 린드베리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이어갔다. 5차 연장은 앞선 18번 홀(파6)에서 있었던 4차 연장까지와는 달리

10번 홀(파4)에서 진행됐다. 린드베리의 중거리 버디 퍼팅이 홀 컵 바로 앞에서 멈춰서며 박인비가 우승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박인비의 버디 퍼팅도 짧게 형성되며 17번 홀(파3)로 옮겨 6차 연장 승부를 이어갔다. 박인비의 티샷이 그린 왼쪽 벙커에 들어가며 위기를 맞았다. 린드베리의 티샷도 그린 옆 러프에 떨어졌다. 위기의 순간에도 박인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이 홀컵을 지나쳤다. 다소 부담스러운 파 퍼팅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린드베리를 압박했다. 박인비보다 짧은 거리지만 린드베리 역시 쉽지 않은 파 퍼팅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날 5차례나 경험했던 18번 홀(파6)로 돌아와 7차 연장에 돌입했다. 린드베리가 루운에 성공했지만 이글을 하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남겼다. 박인비는 세 번째 샷을 홀대 2m 거리에 붙이며 버디 기회를 잡

았다. 두 선수는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파에 그쳤다. 다시 10번 홀(파4)로 돌아와 치른 8차 연장에서 두 선수는 5차 연장 때와 비슷한 위치에 공을 떨어뜨리며 버디 기회를 잡았다. 앞서 퍼팅이 짧게 형성되며 버디를 놓쳤던 린드베리가 이번에는 과감한 퍼팅으로 버디를 잡았다. 반면, 박인비는 버디 퍼팅을 실패하면서 파에 그쳐 우승을 내줬다. 이날 초 벅크 오프 호프 파운더 스킵에서 부활을 알린 박인비는 지

난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대회 우승과 함께 불과 한 달 만에 우승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LPGA투어 통산 20승, 메이저 통산 8승도 디오로 마무리했다. 역대 연장전 전적도 7전 3승 4패로 5할 승률이 못미치게 됐다. 2010년 데뷔한 린드베리는 9년 만에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했다. 여자골프 현역 최강인 박인비를 꺾고 극적인 우승을 일취우승 상금 42만 달러(약 4억4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메이저 준우승 박인비, 세계랭킹 3위 도약...상금도 선두

생애 첫 우승 린드베리, 랭킹 61계단 경총...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1박2일에 걸친 연장 접전 끝에 어렵게 준우승했지만 세계랭킹 ‘톱3’에 복귀했다. 3일(한국시간) 발표된 볼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박인비는 평균포인트 6.40점으로 지난해 9위에서 6계단 상승하며 3위에 올랐다. 박인비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80만 달러)에서 8차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페

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에 져 준우승했다. 어렵게 메이저 타이틀을 손에 넣지 못했지만 2016년 7월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랭킹 4위로 밀려 난 뒤 약 2개월 만에 톱3에 복귀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랭킹 19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날 초 LPGA 투어 ‘벅크 오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톱10에 복귀한 뒤 이번 3위에 이름을 올리며 2주 만에 세계 1위 탈환이 가능한 자리까지 순위가

경총 뛰었다. 박인비는 2013년 4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2015년 10월까지 총 92주간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박인비는 각종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준우승 상금 22만3635달러를 획득, 시즌 상금 순위에서 48만221달러를 벌여 선두로 나섰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69.00타로 선두인 제시카 코다(미국·68.31타)를 바짝 쫓았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54점으로 린드베리(60점)에 이어 2위다.

193전 1승 기적 린드베리, ‘드림보 플레이’ 눈살

자세 취했다가 풀기 반복...지나치게 긴 루틴에 상대선수 흐름 방해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감격의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연장을 포함해 대회 기간 보여준 느낀 플레이에 가까운 긴 루틴을 두고 국내 골프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린드베리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끝난 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80만달러)에서 이틀에 걸친 8차 연장 끝에 박인비(30·KB금융그룹)를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0년 LPGA 투어에 데뷔한 린드베리는 이 대회 전까지 192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 9년차 투어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정도로 2부 투어인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우승 경험도 없다. 이번 대회 1, 2라운드 감쪽 선두로 나설 때만 해도 그녀의 우승을 접치는 이는 거의 없었다. 3라운드 들어 선두를 내주기도 했다. 4라운드에서는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마지막 18번 홀(파6)에서 버디를 댈며 극적으로 연장전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첫 우승에 도전하는 재미동포 제니퍼 송과 ‘골프여제’ 박인비가 연장전 상대였다. 3차 연장에서 제니퍼 송이 탈락한 뒤 최강자인 박인비와 맞대결에

서도 자신 만의 리듬을 잃지 않았다. 2~3m 거리의 험지 않은 퍼팅을 계속해서 넣으며 승부를 이었다. 6차 연장에서 박인비가 부담스러운 거리의 파 퍼팅을 먼저 성공시키며 압박했지만 이를 극복했다. 8차 연장에서 약 8m 거리의 롱 퍼팅을 넣으며 승기를 가져갔다. 메이저 7승, 통산 19승의 박인비도 린드베리의 집중력과 끈질긴 승부욕에 혀를 내둘렀다. 박인비는 경기를 마친 뒤 “마지막 린드베리의 챔피언 퍼트는 이길 수가 없었다. 린드베리의 우승을 축하한다”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린드베리는 역대급 명승부에도 국내 팬들에겐 축하를 받지 못했다. 단순히 박인비를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회 기간 내내 보여준 지나친 슬로 플레이 탓이다. 린드베리의 긴 루틴은 3라운드 공동선두였던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동반 플레이를 하면서 이미 논란이 됐다. 샷 어드레스를 한 뒤에도 핀과 볼을 번갈아 바라보기를 몇 차례씩 반복하는 특유의 루틴은 보는 이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퍼팅 자세를 취하기도 확신이 없다 싶으면 볼머킹을 한 뒤 다시 퍼팅 라인

을 살폈다. 3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한 린드베리와 박성현은 11번 홀에서 12번 홀 티파스로 이동하면서 경기 위원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기 지연이 이유였다. 공교롭게도 2차 차 단독 선두였던 박성현은 경고를 받은 후 6개 홀에서 무려 5타를 잃고 무너졌다. 4라운드 챔피언전에서 경기를 한 린드베리는 바로 앞 조인 박인비가 홀 아웃할 때 여전히 17번 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경기 속도가 상당히 늦었다. 긴장감이 더해질수록 린드베리의 플레이 역시 더 늘어졌다. 승부가 갈린 8차 연장에서는 티샷과 세컨드 샷 모두 어드레스까지 취했다가 자세를 풀고 다시 전장을 살핀 뒤 샷을 했다. 퍼팅에는 2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골프는 흐름과 리듬의 경기라고 한다. 박인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템포가 일정하고 루틴이 복잡하지 않은 그녀로서는 린드베리의 플레이를 보는 것이 편치 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를 지켜본 국내 골퍼 팬들은 대부분 린드베리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슬로 플레이가 너무 지나치고 경기위원이 경고를 줘야 한다”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원 JTBC 골퍼 해설위원도 3일 연장전을 지켜보며 ‘린드베리가 긴장이 되는지 루틴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린드베리는 신경 쓰지



뉴시스

‘제구난조’ 류현진, 시즌 첫 출격 5볼넷 3실점 조기강판

3%이닝 3루타 2개 등 5피안타...투구수 75개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채이스필드에서 벌어진 2018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류현진(31·LA 다저스)이 볼넷을 5개나 내주는 등 제구 난조를 겪으며 힘겹게 시즌 첫 선발 등판을 마쳤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채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 3%이닝 5피안타 5볼넷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3회 투구수 30개를 기록하는 등 20명의 타자를 상대로 75개의 공을 던졌다. 최고구속은 92마일(약 148km)까지 나왔다. 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지만 제구에 어려움을 보이며 힘든 경기를 했다. 4회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 놓고 3-3 동점을 허용한 뒤 페드로 바에즈에게 마운드를 넘기며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1회 초 다저스 타선이 작 퍼더슨과 코리 시거의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야스마니 그랜달의 투런포까지 더해지며 3-0을 만들어 류현진의 어깨가 가볍게 됐다. 그러나 타선의 도움에도 류현진은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지 못했다. 1회 말 선두타자 데이빗 페랄타와 케틀 마르테를 유격수 땅볼과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다. 류현진은 시즌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승리는 둘째치더라도 제구 난조라는 숙제까지 남기며 조기 강판했다. 뉴시스

오승환, 첫 피홈런...민망한 시즌 첫 승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홈런을 허용하고 다소 멧쩍은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7회 등판, 1이닝 1피안타(1홈런)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1-1로 맞선 7회초 선발 투수 하이에 가르시아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 타자 웰링턴 카스티요에게 3구째 89.6마일(144.2km)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다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슬로 홈런을 허용했다. 한 가운데로 물린 공은 카스티요가 놓치지 않았다. 비거리 131m의 큼직한 홈런이었다. 1-2로 역전을 내준 오승환은 후속 타자를 땅볼로 아웃시켰으나 투리 가르시아와 움머 산체스를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내며 1사 1, 2수가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오승환은 후속 타자를 유격수 뜬공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



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투구수 23개 중 스트라이크는 12개였다. 최고 구속 91.7마일(147.8km)을 기록했지만 제구가 불안정했다. 역전을 허용하며 패전 위기에 놓였으나 7회 말 러셀 마틴의 역전 투런포가 터지면서 3-2로 경기를 뒤집었다. 오승환에 이어 등판한 라이언 테페이가 8회를 실점 없이 막았다. 3-2로 앞선 8회 말에는 알레타미스 디아즈의 헤기 솔로포까지 더해졌다. 토론토는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노로 하여금 뒷문을 걸어 잠그며 4-2로 승리했다. 행운의 승리를 챙긴 오승환은 토론토 입단 후 3경기 등판해 30개 1실점하며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3.0이 됐다.

뉴시스